

추천서 볼 권리는 포기하는게 좋다

학생은 대학 입학사정관에게 보내질 추천서를 읽어볼 권리를 포기해야 할까?

대입 컨설팅 전문기관 'Admission masters' (theadmissionmasters.com)의 Richard Vincent Kim 컨설턴트에 따르면 결론은 '그렇다' 이다.

먼저 교사에게 추천서를 부탁할 때는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

첫째, 교사가 편한 시간에 직접 찾아가서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는지 물어본다. 가능하면 이메일을 보내는 것보다 직접 가서 예의를 갖춰 이야기를 꺼내는게 낫다.

둘째, 그 교사에게 추천서를 부탁하는지 이유를 잘 설명한다. 예를 들어 교사의 수업이 어떤 면에서 나에게 의미가 있었는지, 수업 중에 내가 어떻게 기여했고 어떤 면에서 개인적으로 성장했는지, 그래서 교사가 나의 학업 능력 등을 대학에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든지 등 이유를 말하라.

셋째, 교사가 당연히 추천서를 써줄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는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추천인을 선택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부탁한다면 거절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일찍 부탁하지 않아서 교사가 추천서를 쓸 시간이 넉넉하지 않거나, 이미 많은 학생들로부터 추천서 요청을 받았다면 교사가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정기적으로 추천서가 진행되는 상황을 점검한다. 애초에 나에게 대한 상세정보를 담은 레주메나 브래그시트 (brag sheet)를 교사에게 전달해야 하고, 추천서 마감일이 언제인지 꼭 알려야 한다. 레주메를 전달한 뒤 과외활동 측면에서 나에게 새로운 성과가 생기거나 큰 상을 받았다면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또한 마감일이 다가오면 중간에 교

사에게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표한다. 교사가 나를 대학에 추천한 점에 대해 진정성을 담아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렇다면 추천서는 입시에서 얼마나 가중치를 가질까?

대학마다 다르긴 하지만 특히 테스트 블라인드이거나 테스트 읍셔널인 대학에서는 추천서의 가중치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 테스트 블라인드는 SAT, ACT 등 표준시험 점수를 입학심사에서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테스트 읍셔널은 지원자가 표준시험 점수를 대학에 제출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말한다.

표준시험 점수가 없을 경우 대학은 원서의 다른 요소들, 즉 더 개인화된 측면을 들여다볼 것이다. 게다가 추천서는 지원자의 학업적 능력과 성품 모두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추천서는 단지 대학 지원자로서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학생에 대한 통찰을 담는다.

그렇다면 학생은 왜 추천서를 읽어볼 권리를 포기해야 할까?

학생이 추천서에 접근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추천인과 입학 사정관을 신뢰하지 않으며, 입시 과정을 밀착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나 다름 없다. 이렇게 하면 추천인이 개인적이고 진심이 담긴 추천서를 쓰기 보다 일반적이고 평범한 추천서를 작성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심지어 추천서를 쓰고 싶어하지 않는 결과마저 초래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추천서를 부탁할 때 나를 잘 아는 사람,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그래서 대학에 나의 강점을 강력하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 신중하게 부탁한다면 어떤 어조와 내용으로 썼을지 대략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대입 준비 위해 10학년이 지금 해야 할 일

4월은 미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10학년 학생들에게 중요한 시기이다. 앞으로의 학업 및 활동 계획을 세우고, 대학 입학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는 10학년들이 대학 입시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조언했다.



■ 학업

- 2학기말 시험 준비: 2학기 말 시험 범위를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공부 해야 한다.
- AP/IB 수업 선택: AP/IB 수업을 선택할 경우, 신중하게 선택하고 시험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 AP 시험 준비: 5월 시험 신청을 한 학생들은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대학 진학 요건 충족 계획: 대학 진학에 필요한 학점, 과목, 시험 점수 등을 확인하고 충족 계획을 세워야 한다.
- GPA 유지: 높은 GPA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 진로 탐색 및 활동

- 무엇보다 최상위권 대학에 가는 학생들은 액티비티에 무엇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 액티비티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9학년이 탐색시기라면 이제 10학년은 방향을 정해 깊이 있게 활동을 해야 한다. 최상위권 대학의 당락은 액티비티에서 갈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진로 탐색: 관심 분야 및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기 위해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에 참여한다.
- 봉사활동: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는다.
-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을 통해 리더십, 협업, 시간 관리 등 다양한 역량을

키운다.

- 리더십 경험: 리더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는다.
 - 수상 및 성과: 학업,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서 수상 및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 ### ■ 대학 입학 준비
- PSAT 시험 준비: 10학년 가을에 PSAT 시험을 보는 경우, 시험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 대학 목록 작성: 관심 있는 대학 목록을 작성하고, 각 대학의 입학 조건, 학비, 장학금 정보 등을 조사한다.
 - 대학 방문: 가능한 경우, 관심 있는 대학을 방문하여 캠퍼스 분위기 및 시설을 직접 경험한다.
 - 입학 에세이 주제 선정 및 초안 작성: 입학 에세이 주제를 선정하고, 초안 작성을 시작한다.
 - 추천서 작성자 선정: 추천서 작성을 의뢰할 교수 또는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요청한다.

■ 기타

- 건강 관리: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여 건강을 관리한다.
- 스트레스 관리: 학업 스트레스를 견뎌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 좋은 GPA를 받도록 노력한다.

사진=shutterstock

Sandy Kim 라인댄스 초급반 오픈

NOW OPEN

제일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샌디 김의 라인댄스 초급반이 드디어 오픈합니다

-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춤!
- 스트레스 해소
 - 정신 건강 증진
 - 만성질환 예방
 - 치매 예방 효과



<초급반>
월·목요일: 오전 9시~10시 15분
<중·고급반>
월·목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등록비>
일주일에 두 번 참여시 월 \$80
한 번 참여시 월 \$45
* 한국어로 수업 진행 *

T.562.279.4200 | 305 E.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